

데스크 시국



박석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최근에 '추급권' (追及權-resale right)이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권리의 목격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부연하자면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이를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상에 방 한 칸 없었던 이중섭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 제정안 가운데 추급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도 불리는 추급권은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원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30년간 존속하며,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추급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외에서는 100년 전부터 화가에게 일부 보상의 권리가 주어지는 추급권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20년 세계적인 거장인 고흐, 세잔 등의 그림이 고가에 거래됨에도 정작 화가와 유족들은 빈곤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추급권이 담긴 미술진흥법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불

은펜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굴화위지' (鿁化屍尸)란 고사성어가 있다. 회수(淮水·중국 황화와 장강의 사이를 흐르는 강) 남쪽의 굴을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맹자가 된다는 뜻이다. 토질과 물과 환경에 따라 재배되는 것이 다르듯, 사람 또한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건축행정 또한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많은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 당연히 배우고, 익혀, 우리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배우기는 하지만 익히고, 숙성시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광주 도시 발전과 변화를 위해 그간 지역 리더들이 많은 선진지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되돌아와서는 경험담만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지난달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다.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 현장에서 보행자 중심, 공유 자전거 시설, 친환경 건축물, 랜드마크 타워 등을 체험했다. 그 과정에 당연히 광주의 현안들을 고민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시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보행자 중심, 녹지 확대 등 인간을 최우선에 둔 공공

기고



노경호 시 낭송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단조의 2악장' 트랙을 찾아 불륨을 올려 본다. 매해 클래식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놓치지 않는 곡 중 하나로, 나의 애청 리스트에도 빠지지 않는 곡이다. 이유는 이 음악이 매우 장중하고 영웅적이면서도 그 곡 안에 배어있는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질 정도의 수평같이 투명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유가 있는 휴일 오전 이 곡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쪽 어디에선가 은밀히 잠복해 있던 시심(詩心)이라는 녀석이 불현듯이 스멀거리며 기어나온다. 이런 감동이 생길 때 고개를 누리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이 시를 창작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는 첫째, 좋은 작품을 발굴해 여러 번 읽고 타인들과 낭독해 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보며 그 안에 깔려있는 시인의 새로운 시각을 알아가야 한다. 둘째로는 좋은 시를 암송해서 내가 느꼈던 감동을 약간의 퍼포먼스 등을 가미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좋은 작품을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하는데 낭독은 그

예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단상

현듯 떠오른 이가 화가 이중섭(1916-1956)이다. 이별과 곤고, 병마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살랐던 이중섭은 가난한 예술가의 대명사다. "선량한 우리 네 가족은 세상에 소용없는 하나 둘 정도 죽여서라도 반드시 살아가야 하오. 무작정 미안하다. 면목 없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말은 우리 가족이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생활을 시작한 다음의 문제가 아닌가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하나 빌려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생활을 시작한 다음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 빨리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소." 몇 해 전 제주도 출장길에 들렀던 이중섭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과 삶, 그리고 부인에게 썼던 편지를 접했다. '이중섭 편지'(현실문화)에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단칸방'과 '한 끼'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이중섭은 6:25 전쟁으로 제주에 피란을 왔을 당시, 가족과 함께 잠시 남의 집에 머물렀다. 그곳은 고차 1.4층에 지나지 않은 초가집에 딸린 공간으로 방이라 말하기에도 무색할 만큼 비루했다.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작가가 감내해야 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한 여인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로 식솔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이중섭이 견뎌야 했던 삶의 무게와 고뇌는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단칸방이라도 하나 빌려 하루에 한끼를 먹더라도"라는 표현에선 삶의 송고함과 버거움이 동시에 읽혀진다. 이중섭이 자주 그랬던 순정하면서도 강렬한 황소의 눈망울은 어쩌면 일본으로 떠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인지 모른다. 지난 7월에는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의미있는 조치가 내려져 문화예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

광주, 유럽에서 도시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도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현안이 많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유럽 도시의 성공사례를 광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경험담을 토대로 밝힌 방향은 다 옳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광주에 적용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고,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내놓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실무 팀장급 공무원들을 다시 보내자. 팀장급 공무원 한명이 좋게 변하면, 교수 열 명의 변화, 전문가 백 명의 변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들은 과장, 국장이 될 사람들이다. 도시의 변화는 시장과 몇몇 간부급 공무원들만 안다고 일어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변해야 한다. 그들의 시선이 시장이 경험한 그 수준의 눈높이가 되어야 변화가 시작이 된다. 실무자는 선진지 성공사례의 맥락을 이해하고, 깊은 숙살과 문화 환경, 긴 진행과정 등 문제 해결 과정 등등을 숙속들이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광주라는 토질과 물과 환경에 적용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고, 상호 학습하여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민활동가, 지역 전문가와 함께 하자. 잠깐은 외부에서 유명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 서울의 누구, 일본의 누군가 와서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럴 듯한 꼴나무 몇 그루 심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민하는 시민활

시 낭송이 필요한 이유

작품의 내용에 충실해 정확한 뜻과 발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면 암송해 전달하는 낭송은 그 작품을 암기해 내용을 전달할 때 필요한 감정을 가미해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시 낭송이 필요한가. 시 낭송을 하려면 외워야 하니 두뇌에 자주 자극을 주어 치매 예방에 좋다. 시 낭송 단체나 문학클럽에 들어가 무대에 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진부한 생각은 물어두자. 우선 시 낭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 시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낭송하려는 시가 너무 길면 지루해지고 시조와 같이 우리 정서적으로 친근한 작품은 3수 정도(9행)로 짧아 감정 처리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시 가운데(20행 남짓)이 좋겠다 먼저 내가 공감하는 시를 골라보고 그 시를 여러 번 읽어 본다. 또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이나 당시 시인이 처했던 상황, 역사적인 배경 등의 참고자료를 많이 알수록 그 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낭송을 위해서는 시의 원문을 외워야 하는데 수 십, 수백 번을 읽으며 곱씹는 과정에서 저절로 그 작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음악에서 이제껏 발견하지 못했던 악기의 음색이나 화성의 어울림을 발견하는 일과 같이 감동적이고 신비한 일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쓰는 단어나 문장이 아닌 시인의

부(문제부)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술가 생존권은 '공정'의 문제

문제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미 분배된 수익을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할 것과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 내용 등을 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만화계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렸으며, 이와 맞물려 원작자 권리의 중요성도 환기했다. 앞서 언급한 미술진흥법의 '추급권'이나 만화계의 '불공정 계약'은 '공정'의 문제와 직결된다. 요즘처럼 '공정'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전 영역에 걸쳐 쓰이는 때도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반증하는 것일 터인데, 중요한 것은 공정과 상식을 구호가 아닌 '인간 존엄'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예술가는 가난하다', '공필 속에서 예술은 꽃 핀다'는 말과 같은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예술가들에게 은근히 강요하거나, 그러한 풍조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던 게 사실이다. '지상에 방 한 칸' 남겨두지 못하고 외로움과 병마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중섭과 같은 이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술가들에게 합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공정'이 아닐까 싶다.

동가와 지역 전문가들의 몫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역 전문가를 흡사나 같보는 정서를 가지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을 존중해 주고, 필요시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행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콘텐츠타워를 만들자. 도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지를 개발하는 공공건축물을 짓는 기획에서 완공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도 간다. 이 사이에 가장 핵심인 공무원은 수차례 바뀐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절대 좋은 도시 공간구조, 공공건축물이 나올 수 없다. 나온다면 기적이다. 매년 인사이동과 순환보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도시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그 분야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장기간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타 지역 유명인사 자문 등등 모두 좋다. 그리하여 회수 남쪽의 굴을 회수 북쪽에 심은 들, 그 곳에 사는 사람이 자연환경에 맞게 개량하고, 정성을 다해 관리하지 않는다면 헛수고다. 죽거나, 맹자가 되거나, 상품가치 없는 굴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지역 전문가든, 시민활동가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 더 생각하고,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실천하여 환경을 개선하자. 굴이 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는 맹자를 심어두어 굴이 되는 '지화위굴' (鿁化爲鿁)의 변화를 이룩자. 그래야 광주가, 유럽에서 도시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언어와 문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습득되어 내 자신의 언어생활과 내연이 확장되는 즐거움이 따라 오게 된다. 또 언어의 운율과 대화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장단이 뚜렷하고 거센소리가 중심이 되는 우리 언어의 사용을 볼 때 남들과 다른 발성과 목소리 톤, 거기에 운율까지 실린 시의 대화라니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이 아닌가? 시 낭송은 아직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기에 주변 예술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 특히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는 등 음악적 기법과 호흡과 발성법 등이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어떤 영화를 본 후 또는 소설이나 수필을 읽고 간략히 내용을 소개할 때 그 영화나 소설보다 더 흥미를 끌며 설명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와 같이 시 낭송도 시의 내용과 사상을 더 맛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해 깔거나 시의 내용에 가까운 배경화면이나 동영상을 쓰기도 한다. 물론 시는 가장 순수한 낱것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끔은 내레이션과 동화구연 연극의 변방에서 명확한 위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아직은 곁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동네의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아들도 많다. 오늘도 좋은 시를 외우며 타인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할 매개체로서 시 낭송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본다.

社說

일상화 된 극한기후... 도시개발 방식 혁신해야

가뭄, 폭우, 폭염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나 가뭄, 시간당 80mm를 웃도는 집중호우는 날씨 뉴스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다.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로 100여 명이 숨진 사고도 이상 기운으로 인한 가뭄과 태풍이 초래한 참사다. 국내에서도 얼마전 소멸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평소 태풍 궤적과 달리 한반도를 남북으로 통과해 한 반도를 관통한 첫 태풍으로 기록됐다. 광주·전남에선 올해 봄까지만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동북댐 등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져 제한급수 위기에 처했다가 곧 이은 장마와 태풍으로 댐을 방류할 정도로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극한 기후가 일상화 된 상황에서는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들어 아직까지는 광주·전남에 이렇다 할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최대치를 경신하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기존 도시 개발 방식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최악의 가뭄이나 폭우, 폭염을 가정해 하수 시설이나 하천 제방, 재난 대피 장소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뭄에 대비해 신규 건물용지를 지을 때 빗물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기본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자원 확보와 물 공급, 가뭄·홍수 등 태풍의 경감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전남에선 불과 3년 전 폭성과 구레 대홍수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개발 단계부터 극한 기후를 예상하고 재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이상의 인재(人災)는 없을 것이다.

외면 받는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 재설계를

광주시 동구가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충장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사업과 중복 투자를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인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다 상인들 갈등 양상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최근 '특화거리 콘텐츠개발·조성'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장로 2가 K-POP 스타의 거리와 충장로 4가 혼수의 거리, 영화의 거리, 도깨비 골목 등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K-POP 스타의 거리의 경우 앞서 광주시가 예산 37억 원을 투입해 조성을 완료한 상태로, 중복 투자를 하는 셈이다. 나머지 혼수의 거리 등도 특화된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상공간

(메타버스)에 충장로를 구현해 비대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상권 플랫폼' 조성 사업 역시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기관과 상인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상인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장로를 살리기 위한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상인들과 괴리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외면을 받는 광주시 동구의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은 재설계가 필요하다. 충장로는 광주시민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거리이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상가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 상인들도 동구의 사업 추진과 함께 좋은 상품 구비와 친절한 응대, 철저한 애프터서비스(AS)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활기를 띤 충장로의 변신을 기대한다.

無等鼓 (No Equal Drum) - 윤석열 대통령 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이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로 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업 총수들이다.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황제 보석과 각종 특혜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비리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 명단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되면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을 받고 구형장징역을 상실했다. 여론에서는 '공익 제보'인 만큼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유죄였다. 그런 그가 대법원 확정판결 석 달 만에, 사면·복권된 것이다. 판결문의 인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앞서 지난 신년 특사에는 김태효 국가